

#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elf-Esteem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이주양\*, 차석빈\*\*

백석문화대학교 관광학부\*,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Ju-Yang Lee(sky9357821@naver.com)\*, Suk-Bin Cha(sbcha@sch.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 후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의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4개 요인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면접효능감 1개 요인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의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직업탐색 등 2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탐색효능감과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 중심어 : | 항공서비스 | 자아존중감 | 진로탐색자기효능감 | 진로탐색행동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with a sample of 211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in Choong Chung province.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s based on the use of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self-esteem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ll the factor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while negative self-esteem had a negative(-) effect on interviewing efficacy. Second, positive self-esteem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exploration. Third, career search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Lastly, career search self-efficac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self-esteem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 keyword : | Airline Service | Self-Esteem | Career Search Self-Efficacy | Career Exploration Behavior |

\*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접수일자 : 2016년 12월 09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13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20일

교신저자 : 차석빈, e-mail : sbcha@sch.ac.kr

## I. 서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8.7%로 전년 동월대비 0.1%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대비 0.3% 상승한 4.9%로 나타났다. 특히 15세~29세에 해당되는 청년층 실업률은 12.5%로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하였으며,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1].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점차 증가하면서 대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저학년 때부터 각종 자격증 취득, 외국어 능력 향상, 학점 관리 등 스펙(specification)을 강조하고 있다[2].

이와 같은 현상은 항공관련 전공 대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목표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로 항공사 공식 채용공고에서 객실승무원의 채용 경쟁률은 100대 1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항공사 채용 면접은 일반적인 1회성 면접과는 달리 3차, 4차에 이르는 면접 과정으로 외적이미지, 자질, 태도에서 외국어 능력, 조직융화력, 기내방송 낭독, 상황대처 능력에 이르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4]. 따라서 직업에 대한 간접경험과 관심 분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인 진로탐색행동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5].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다양한 변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는 개인의 긍정심리와 자신감과 관련 있는 심리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로상담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진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청소년 시기부터 연구자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진로탐색행동, 진로 준비도 및 진로태도 성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어졌다[6][7].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진로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연구[8-10],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간 관계[11],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12] 연구가 대부분이다.

진로탐색행동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남·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는 횟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생들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탐색 행동에 더 적극적이고 참여 횟수도 많아지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3]. 따라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을 촉진하는 선행변수가 되며, 개인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구는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14][15],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및 취업준비행동 간 관계[16][17],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8]가 진행된 바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 탐색 행동 간 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 후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시하여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것[19]으로 다수의 자아존중감 연구를 수행한 Coopersmith[20]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여 내리는 평가로, 본인을 가치 있고, 성공적이며, 능력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 믿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평가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행동을 다양하게 결정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1].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정보들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미래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22]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노

력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2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진로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진로에 대한 확신 또한 높게 나타나지만[11],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24].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진로선택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의 측정 도구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19]와 Coopersmith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20]가 대표적이다[25].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Rosenberg[19]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lf-Esteem Inventory[20]는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연구는 Rosenberg[19]의 척도를 토대로 한 정명실[26]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실패자, 유용하지 못함, 쓸모없음 등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2.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 수행, 지속성 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27].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을 위해 자기탐색, 직업탐색, 관계구축, 면접탐색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며 대인관계를 활용하는 등의 진로 수행 능력과 관련된 효능감 기대를 말하며,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 수준으로 정의된다[28].

이처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에 진로를 추가하여 적용된 개념이다. Taylor와 Pompaf[29]에 따르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직업탐색활동을 더 활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수준은 진로탐색행동을 예측하는 변수가 되며, 개인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0].

한편,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Taylor와 Betz[31]가 개발한 진로결정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 척도는 대학 신입생들과 관련된 진로 문제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전공을 이미 선택한 대학생 및 성인들의 진로관련 효능감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Solberg et al.(1994)이 개인 탐색, 진로 탐색 및 직업 탐색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진로탐색활동 수행 시 개인의 확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검사(CE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Solberg et al.[28]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검사를 토대로 한 최옥현[32]의 연구를 참조하여 직업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직업탐색효능감은 직업선택과 구직활동영역에서의 수행 가능성에 관한 내용이며, 면접효능감은 면접을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직업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관계구축효능감은 취업을 위해 주변의 대인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인탐색효능감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3.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은 진로개발, 진로결정, 그리고 진로지도 등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탐색행동은 대체로 자기탐색활동과 직업탐색활동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Blustein[30]에 의하면 진로탐색 행동은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추후 직업을 선택했을 때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기평가 및 외부탐색 활동이라고 하였다. Grotevant와 Copper[34] 역시 진로탐색행동은 개인의 특징(가치관, 능력, 흥미, 성격)을 평가하고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반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세계에 대한 기대나 생각을 검증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하였다.

국내 학자인 최동선과 정철영[35]은 진로탐색행동을 앞으로의 진로 결정을 위한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탐색 행동은 전 생애의 모든 발달 단계에 걸쳐 일어나지만, 특히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6].

진로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VC(Vocational Checklist)[37], CES(Career Exploration Survey)[33], Job Search Behavior Index[38] 등이 있으며, VC는 행동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CES는 탐색에 대한 신념, 탐색의 과정, 탐색에 대한 반응의 3가지 행동 및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Job Search Behavior는 준비적 탐색행동과 활동적 탐색행동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최동선(2003)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실정에 맞고 자신의 특성에 대한 평가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최동선[39]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한 나정기[40]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인탐색활동과 직업탐색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개인탐색활동은 전문상담이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특성 혹은 성격의 장·단점 등을 살펴보는 활동이며, 직업탐색활동은 관심분야의 직업정보를 위해 전문가나 관련 프로그램,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탐색하는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4. 구성개념 간 관계 및 가설 설정

##### 4.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간 관계

Laurent[41]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간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교 1, 2학년 을 대상으로 한 서우석[4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Hackett와 Betz[43]는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최초로 진로교육에 접목하여 진로발달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Solberg

et al.[13]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매우 높은 상관이 있으며, 진로결정의 욕구, 진로탐색활동 수행 횟수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자아존중감과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수도권에 위치한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윤정혜[4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

Korman[24]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에 형성해 놓은 자아개념과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한 자아상보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요구 등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로 심지연과 이형룡[5]은 관광계열 전공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셸프리더십과 자아존중감,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 연구에서 셸프리더십이 진로탐색행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자아존중감이라는 요인은 진로탐색행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게 하여 대학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안권순과 한건한[8]은 개인특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은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형성과 함께 진로탐색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

Solberg et al.[28]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대한 수

준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으며, Gushue et al.[45] 역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양하고 활발한 진로탐색 행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나정기[46]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옥, 최규일과 배지영[47]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탐색효능감과 면접효능감의 두 개 요인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울산, 대구 지역 대학의 치위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은숙, 노은미와 고효진[48]의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면접효능감을 제외한 직업탐색효능감, 개인적탐색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의 세 요인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의 결과변수인 동시에 진로탐색행동의 선행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 관계를 살펴본 후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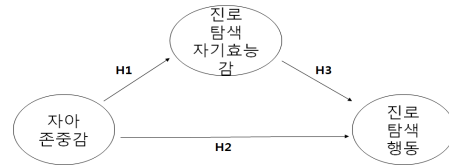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변수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지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성별, 학년, 소속대학,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의 연구를 참조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자질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평가'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정명실[26]의 연구를 참고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의 총 10문항을 도출하였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Solberg et al.[28]의 연구를 참조하여 '진로탐색 및 선택과 관련된 면접, 대인관계, 직업탐색에 대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으며, 측정도구 역시 Solberg et al.[28]이 개발한 진로탐색자기효능감 검사를 최옥현[32]이 한국어로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변수는 직업탐색효능감 6문항, 개인탐색효능감 4문항, 관계구축효능감 5문항, 면접효능감 5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과 정철영[35]의 연구를 참조하여 '앞으로의 진로선택, 결정을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대한 자기탐색과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39]이 개발한 측정도구인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검사를 토대로 한 나정기[40]의 연구를 참조하여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측정 문항[표 1]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표 1. 측정 문항

자아존중감
S1.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낌
S2. 나는 장점(좋은 자질)이 많다고 느낌
S3.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
S4. 나는 일하는 데 있어 남들만큼은 할 수 있음
S5. 나는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음
S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대함
S7. 대체로 나는 나 자신에 만족함
S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람
S9. 대체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짐
S10. 때때로 나는 내가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진로탐색자기효능감
E1.나는 나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 확인 가능함
E2.나는 나의 관심 직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음
E3.내가 지원할 회사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소개편지를 작성할 수 있음
E4.면접 중 그 직업의 성격에 파악할 수 있음
E5.면접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E6.직업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것을 알고 평가할 수 있음
E7.나의 가치관을 명료화하고 검토할 수 있음
E8.취업 위해 내 주변의 대인관계 활용 가능
E9.나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알고 평가할 수 있음
E10.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내 주변의 대인관계 활용할 수 있음
E11.나에 대한 지식, 타인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원하는 직업정보를 사용하여 현실적이고 만족스런 취업계획을 세울 수 있음
E12.취업 또는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 조직에 참여할 자신이 있음
E13.취업을 위하여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음
E14.나의 개인적 능력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음
E15.내가 갖고 있는 직무 기술을 알고 있음
E16.나의 직업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음
E17.나는 취업 관련 사회적 장벽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음
E18.직업을 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대안들을 조사할 수 있음
E19.나는 개인적 난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음
E20.나의 기술이 다양한 직업세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
진로탐색행동
B1.관심 있는 직업 정보를 위해 직업과 관련된 직장 혹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에게 편지나 전자우편(e-mail) 발송
B2.관심분야 직업정보를 위해 취업설명회나 직업박람회 찾아가 참관
B3.진로상담, 워크숍, 특강 등에 참여하여 직업정보 수집
B4.학과 교수님을 찾아가 관심직업이나 직장에 관해 상의
B5.관심 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
B6.취업 관련 내용이나 관심 있는 직업분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TV 시청
B7.신문이나 잡지에서 직업 소개 기사나 자료를 찾아 숙독
B8.인터넷에서 취업에 관한 내용이나 관심직업분야를 소개하는 동영상(VOD)을 찾아서 시청
B9.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업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자 함
B10.관심직업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용동향이나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
B11.관심분야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책 또는 팸플릿, 홍보물 등을 읽어봄
B12.아르바이트 및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활동, 실습, 인턴 등을 통해 관련분야의 실천 경험 쌓음
B13.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정보를 위해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정보 검색, 정리
B14.관심 있는 분야에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한 정보 수집

B15.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의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정보 탐색
B16.나의 성격이나 적성, 흥미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심리검사를 받아봄
B17.관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해봄
B18.나의 과거 삶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관해 생각
B19.형제, 자매, 사촌들과 함께 나의 성격, 장단점에 관해 상의
B20.나를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세미나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예: 자기성장 프로그램 등)에 참여
B21.나의 특성이나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 인터넷 상담 받음
B22.학교선배나 친구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상의
B23.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깊이 있게 반성해봄
B24.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나의 장단점이나 성격에 관해 상의
B25.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해봄

###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4년제 대학의 항공서비스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으로는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제 4개 대학의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대학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설문방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44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취업과 진로준비에 관심이 높아지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 설문지 211부가 최종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3.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성개념의 요인구조 및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차원도출을 위해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직각회전이 이용되었으며, 요인 도출기준으로는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과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40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자아존중감, 진로탐색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관계의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의 특성으로 성별에서는 학과의 특성상 여학생 비율이 8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에서는 2학년이 49.3%, 3학년이 34.6%, 4학년이 16.1%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지역 대학과 충북지역 대학이 각각 46.9%와 53.1%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2. 구성개념의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연구는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10개 항목 중 공통성이 0.4 이하인 변수 제거 및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4개 항목이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6개 문항의 2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각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명명되었다[표 2]. 총 분산설명력은 70.396%, KMO 값은 0.730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값인 Cronbach's  $\alpha$ 는 모두 0.7이상으로 모두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총 20개 항목 중 척도 정제과정을 거쳐 5개 항목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5개 문항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각각 직업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으로 명명되었다[표 3]. 총 분산설명력은 61.217%, KMO 값은 0.886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 값인 Cronbach's  $\alpha$ 는 모두 0.7이상으로 모두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진로탐색행동은 총 25개 항목 중 척도 순화과정을 통해 6개 항목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의 5개 요인은 각각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직업탐색, 관심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색, 전문 진로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으로 명명되었다[표 4]. 총 분산설명력은 59.146%, KMO 값은 0.833으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5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자아존중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 bach's $\alpha$
긍정적 자아존 중감	S1	4.099(0.635)	.887	1.301	32.827	.725
	S4	3.943(0.784)	.756			
	S2	3.952(0.695)	.742			
부정적 자아존 중감	S10	1.848(0.875)	.859	2.923	37.569	.812
	S3	1.800(0.844)	.833			
	S9	1.758(0.788)	.814			

2 분산설명력(%)=70.396, KMO=0.730  
Bartlett's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446.422, df=15, p=0.000)

표 3.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 bach's $\alpha$
직업탐 색효능 감	E15	3.531(0.745)	.773	6.626	20.805	.830
	E17	3.365(0.740)	.726			
	E14	3.602(0.685)	.714			
	E16	3.626(0.767)	.661			
	E18	3.507(0.726)	.595			
	E12	3.640(0.789)	.539			
면접 효능감	E4	3.474(0.692)	.749	1.635	16.105	.768
	E5	3.550(0.731)	.724			
	E3	3.403(0.706)	.662			
	E2	3.640(0.685)	.616			
관계 구축 효능감	E10	3.621(0.804)	.812	1.140	12.695	.793
	E8	3.640(0.777)	.701			
개인 탐색 효능감	E7	3.621(0.716)	.804	1.006	11.611	.717
	E9	3.621(0.755)	.620			
	E11	3.607(0.725)	.462			

총 분산설명력(%)=61.217, KMO=0.886  
Bartlett's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1457.222, df=136, p=0.000)

표 4. 진로탐색행동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요인명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 bach's $\alpha$
자기반성 및 지인 대화 통한 자기탐색	B23	3.626(0.821)	.746	5.400	15.034	.740
	B24	3.540(0.890)	.709			
	B25	3.953(0.893)	.683			
	B19	3.59(0.835)	.632			
	B22	3.507(0.869)	.467			
매체 이용 직업탐색	B8	3.616(0.878)	.824	2.118	15.001	.822
	B7	3.668(0.789)	.808			
	B6	3.545(0.885)	.770			
	B9	3.531(0.835)	.594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B12	3.387(0.857)	.750	1.533	12.376	.710
	B14	3.185(0.845)	.632			
	B13	3.545(0.829)	.606			
	B2	3.190(0.917)	.593			
	B16	3.701(0.817)	.444			

관심 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색	B5	3.199(0.898)	.759	1.128	9.238	.581
	B4	3.218(0.839)	.573			
	B10	3.308(0.825)	.539			
전문 진로 서비스 이용 자기탐색	B21	3.156(0.899)	.685	1.059	7.497	.583
	B20	3.152(0.939)	.672			

총 분산설명률(%)=59.146, KMO=0.833  
Bartlett's 구형성 검정(근사 카이제곱=1229.173, df=171, p=0.000)

### 3. 연구가설 검증

#### 3.1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인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4개 하위 요인인 직업탐색효능감, 면접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표 5]. 한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면접효능감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5.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beta$	t	p
직업탐색 효능감	상수	2.272		8.099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349	.363	5.171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29	-.038	-.535	.593
R=.350, R <sup>2</sup> =.123, Adjusted R <sup>2</sup> =.114, F=14.552, p=.000, Durbin-Watson=1.555					
면접 효능감	상수	2.359		8.845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447	.470	6.975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150	-.198	-2.937	.004*
R=.436, R <sup>2</sup> =.190, Adjusted R <sup>2</sup> =.182, F=24.374, p=.000, Durbin-Watson=1.849					
관계구축 효능감	상수	2.364		6.291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412	.326	4.563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91	-.090	-1.265	.207
R=.303, R <sup>2</sup> =.092, Adjusted R <sup>2</sup> =.083, F=10.538, p=.000, Durbin-Watson=1.711					
개인탐색 효능감	상수	2.035		6.932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429	.417	6.081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32	-.039	-.567	.571
R=.404, R <sup>2</sup> =.163, Adjusted R <sup>2</sup> =.195, F=20.251, p=.000, Durbin-Watson=1.574					

\*p<.01, \*\*p<.001

#### 3.2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인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의 5개 하위 요인 중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2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표 6.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beta$	t	p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	상수	3.161		9.580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46	.137	1.841	.067
	부정적 자아존중감	-.028	-.033	-.443	.658
R=.128, R <sup>2</sup> =.016, Adjusted R <sup>2</sup> =.007, F=1.733, p=.179, Durbin-Watson=1.853					
매체 이용 직업탐색	상수	2.596		7.152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329	.273	3.772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77	-.080	-1.104	.271
R=.254, R <sup>2</sup> =.065, Adjusted R <sup>2</sup> =.056, F=7.175, p=.001, Durbin-Watson=2.104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상수	2.481		8.115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308	.302	4.197	.000**
	부정적 자아존중감	-.075	-.092	-1.273	.205
R=.280, R <sup>2</sup> =.079, Adjusted R <sup>2</sup> =.070, F=8.867, p=.000, Durbin-Watson=1.791					
관심 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색	상수	3.073		8.964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41	.127	1.709	.089
	부정적 자아존중감	-.094	-.106	-1.433	.153
R=.131, R <sup>2</sup> =.017, Adjusted R <sup>2</sup> =.008, F=1.821, p=.164, Durbin-Watson=1.877					
전문 진로 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	상수	2.407		5.746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035	.029	.350	.727
	부정적 자아존중감	.144	.133	1.800	.073
R=.145, R <sup>2</sup> =.021, Adjusted R <sup>2</sup> =.012, F=2.241, p=.109, Durbin-Watson=1.833					

\*\*p<.001



3.3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3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증 결과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직업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과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전문 진로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 등 4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표 7]. 또한 관계구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매체이용 직업탐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표 7.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β	t	p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 통한 자기탐색	상수	1.818		6.081	.000
	직업탐색효능감	.299	.269	3.437	.001***
	면접효능감	-.036	-.032	-.385	.700
	관계구축효능감	.138	.163	2.056	.041*
	개인탐색효능감	.104	.100	1.144	.254
	R=.422, R <sup>2</sup> =.178, Adjusted R <sup>2</sup> =.162, F=11.152, p=.000, Durbin-Watson=1.883				
매체이용 직업탐색	상수	1.525		4.506	.000
	직업탐색효능감	.244	.194	2.474	.014*
	면접효능감	.051	.041	.487	.627
	관계구축효능감	-.036	-.038	-.477	.634
	개인탐색효능감	.319	.272	3.105	.002**
R=.415, R <sup>2</sup> =.172, Adjusted R <sup>2</sup> =.156, F=10.734, p=.000, Durbin-Watson=2.234					
다양한 방법 통한 직업탐색	상수	1.741		6.016	.000
	직업탐색효능감	.321	.301	3.806	.000***
	면접효능감	.024	.022	.265	.791
	관계구축효능감	-.037	-.046	-.576	.565
	개인탐색효능감	.159	.160	1.816	.071
R=.400, R <sup>2</sup> =.160, Adjusted R <sup>2</sup> =.144, F=9.803, p=.000, Durbin-Watson=1.857					
관심분야 중심의 구체적 직업탐색	상수	1.863		5.667	.000
	직업탐색효능감	.178	.154	1.855	.065
	면접효능감	.102	.087	.994	.321
	관계구축효능감	.016	.019	.222	.824

	개인탐색효능감	.092	.085	.923	.357
R=.284, R <sup>2</sup> =.081, Adjusted R <sup>2</sup> =.063, F=4.527, p=.002, Durbin-Watson=1.918					
전문 진로 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	상수	1.804		4.480	.000
	직업탐색효능감	.253	.179	2.160	.032*
	면접효능감	-.134	-.094	-1.067	.287
	관계구축효능감	.168	.157	1.863	.064
	개인탐색효능감	.086	.066	.708	.479
R=.282, R <sup>2</sup> =.080, Adjusted R <sup>2</sup> =.062, F=4.453, p=.002, Durbin-Watson=1.761					

\*p<.05, \*\*p<.005, \*\*\*p<.001

3.4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4인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47]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의 두 개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첫 번째 하위 요인으로 직업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363(p<.001), 2단계 회귀계수는 .239(<.001)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만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단계와 2단계는 유의하나 매개변수를 함께 투입한 3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수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매개변수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며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나머지 세 요인인 면접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 개인탐색효능감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역시 3단계에서 매개변수만 유의한 결과를 보여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 2단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로, 독립변수 요인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면접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경우에

만 1단계에서 회귀계수  $-.114 (<.05)$ 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그 이외의 요인 및 단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단계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8.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영향관계에서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독립/매개/종속 변수	검정 단계	$\beta$	t	p	R <sup>2</sup>
자아 존중감 (긍정, 부정) / 직업탐색 효능감/진로탐색행동	1단계	.363 -.038	5.171 -.535	.000** .593	.123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3단계 (독립)	.086 -.024	1.215 -.366	.226 .715	.206
	3단계 (매개)	.420	6.356	.000**	
자아 존중감 (긍정, 부정) / 면접효능감/진로탐색행동	1단계	.488 -.159	7.309 -2.374	.000** .019*	.205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3단계 (독립)	.079 .012	1.007 .165	.315 .869	.137
	3단계 (매개)	.328	4.526	.000**	
자아 존중감 (긍정, 부정) / 관계구축 효능감/진로탐색행동	1단계	.340 -.093	4.780 -1.312	.000** .191	.100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3단계 (독립)	.144 -.014	1.938 -.200	.054 .841	.122
	3단계 (매개)	.280	4.080	.000**	
자아 존중감 (긍정, 부정) / 개인탐색 효능감/진로탐색행동	1단계	.417 -.039	6.081 -.567	.000** .571	.163
	2단계	.239 -.040	3.273 -.552	.001** .582	
	3단계 (독립)	.083 -.026	1.121 -.376	.263 .707	.168
	3단계 (매개)	.373	5.381	.000**	

\*p<.05,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

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네 개 요인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면접효능감 한 개 요인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면접에 관한 효능감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 윤정혜[4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이전에 이루어지는 진로탐색에 관한 자기효능감 단계를 추가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좀 더 세분화된 연구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설 2의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직업탐색 등 2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계열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지연과 이형룡[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3의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요인인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탐색, 매체이용 직업탐색,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직업탐색, 전문 진로서비스를 이용한 자기탐색 등 4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관계구축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자기반성 및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한 자기탐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탐색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 중 매체이용 직업탐색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은숙, 노은미와 고효진[18]의 연구에서 진로탐색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면접효능감을 제외한 직업탐색효능감, 개인적탐색효능감, 관계구축효능감의 세 요인이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4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긍정적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네 개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4개 요인과 진로탐색행동 2개 요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아 자아존중감은 내적심리변인의 특성으로,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진로탐색행동에 비해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진로탐색자기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밝혀짐에 따라 대학교에서는 학업 및 항공 관련 실습 등의 교과과정과 더불어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학과 행사나 실습 준비 시 작은 역할을 부여해 주어 스스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임을 일깨워준다면 자신감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 중 공동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동기들과 유대감과 협동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별 성향 파악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자아성장 프로그램 및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면접효능감 1개 요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면접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관심직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과 직접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적극적인 행동 형태의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앞서 제시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진로탐색자기효능감은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탐색에 대한 자기기대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실제로 진로탐색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탐색자기효능감 중 직업탐색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주로 매체를 이용한 방법 또는 관심분야에 직접 찾아가거나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지인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탐색하거나 전문 진로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탐색을 하는 행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수업 과정에서 이론 중심보다는 기사 또는 영상을 이용하여 관심 분야를 소개해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관광, 호텔, 크루즈, 외식, 해외인턴십 등 다양한 분야의 실습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구축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주로 자기반성 및 지인과 대화를 통해 자기탐색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인의 가치관을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개인탐색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주로 매체를 이용하여 직업탐색을 하는 결과로 보아 취업 관련 영상 또는 신문,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취업 정보를 이용하여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가 충청남북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지역으로의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대상자와 변인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진로관리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 [1] 심원보, 송준행, “2016년 2월 고용동향,” 통계청 보도, 2016.
- [2]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 리뷰, 제6권, 제2호, pp.197-209, 2015.
- [3] 이소현, “저비용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제대로 훈련을 받을까?” 아주경제신문, 2014(09월11일).
- [4] 양유경, 이정현, 이동한, “승무원 채용을 위한 평가항목-지원자와 면접관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1권, 제2호, pp.3-26, 2013.
- [5] 심지연, 이형룡, “관광계열 전공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21권, 제6호, pp.231-251, 2012.
- [6] 김미영, 조선화, “어머니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9권, 제2호, pp.59-84, 2007.
- [7] 황미구, 김근영, “중학생의 진로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질 및 상태변인의 관계: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 및 정신건강의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3호, pp.71-95, 2008.
- [8] 안권순, 한건한, “청년기의 개인 특성, 성 역할 정제감,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2호, pp.73-102, 2002.
- [9] 임태성, 김주용, 이호열,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참여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58권, 제1호, pp.581-595, 2014.
- [10] 최길순, 이창희, “응급구조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학생활적응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16권, 제3호, pp.91-102, 2012.
- [11] 이경희, 윤미현, “청소년의 부모요인, 친구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75-199, 2011.
- [12]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3호, pp.197-222, 2011.
- [13] V. S. Solberg, G. E. Good, A. R. Fischer, S. D. Brown, and D. Nor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2, No.4, pp.448-455, 1995.
- [14] 김미진, *교육서비스 품질이 전공만족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5] 이주양, 차석빈,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탐색행동 간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6호, pp.377-395, 2015.
- [16] 박인주, 김화진,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관광연구, 제29권, 제6호, pp.83-101, 2015.
- [17] 진경미,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제24권, 제6호, pp.145-162, 2015.
- [18] 강혜순, *항공·관광서비스 전공자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9]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Vol. 11, pp.32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0]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San Francisco: W. H. Freeman, 1967.
- [21] P. A. Hauck, *Overcoming the rating game: Beyond self-love, beyond self-esteem*,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22] A. H. Baumgardner, "To know oneself is to like oneself: self-certainty and self-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6, pp.1062-1072, 1990.
- [23] 원종호, *낮은 자아존중감 회복을 위한 기독교 상담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4] A. K. Korman, "Self-esteem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perceived abilities and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51, No.1, pp.65-67, 1967.
- [25] 심지연,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6] 정명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강화를 위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간 상관관계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332-340, 2014.
- [27] A. Bandura, *Self-efficacy*, In VS Ramachaudran(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Vol.4, pp.71-81), NY: Academic Press, 1994.
- [28] V. S. Solberg, G. E. Good, and D. Nord, "Career search self-efficacy: Ripe for applications and intervention programm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1, No.1, pp.63-72, 1994.
- [29] K. M. Taylor and J. Pompa,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7, No.1, pp.17-31, 1990.
- [30] D. L. Blustein, "The role of career exploration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30, No.2, pp.111-117, 1989.
- [31]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 [32] 최옥현,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 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33] S. A. Stumpf, S. M. Colarelli, and K. Hartman,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2, pp.191-226, 1983.
- [34] H. D. Grotevant, and C. R. Copper, *The role of family experience in career exploration: A life-span perspective*, In P. B. Baltes, R. H Lerner, and D. L. Featherman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8, pp.231-25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9.
- [35] 최동선, 정철영,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115-143, 2003.
- [36] 박은선,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7] J. Aiken and J. A. Johnston, "Promoting career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 No.1, pp.81-87, 1973.
- [38] G. Blau, "Furth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arch between job search and voluntary individual turnover," *Personnel Psychology*, Vol.46, No.2, pp.313-330, 1993.
- [39] 최동선,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40] 나정기,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 조리 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8권, 제3호, pp.181-196, 2014.
- [41] B. Laurent, “Self-esteem regulation in threatening social comparison: The role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self-efficac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33, No.1, pp.69-76, 2005.
- [42] 서우석,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8권, 제4호, pp.149-171, 2015.
- [43]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 [44] 윤정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고용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제5권, 제2호, pp.29-46, 2015.
- [45] G. V. Gushue, K. R. L. Scanlan, K. M. Pantzer, and C. P. Clarke,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3, No.1, pp.19-28, 2006.
- [46] 나정기,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분석-조리, 제과, 제빵 전공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제16권, 제6호, pp.239-264, 2013.
- [47] 정기욱, 최규일, 배지영,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3권, 제1호, pp.61-68, 2013.
- [48] 전은숙, 노은미, 고효진,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학교 진로지원 평가와 진로 탐색 효능감이 진로

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치위생과학회지, 제15권, 제5호, pp.628-635, 2015.

- [49]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저 자 소 개

#### 이 주 양(Ju-Yang Lee)

정회원



- 1993년 11월 ~ 2005년 9월 :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부 사무장
- 2013년 8월 :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학석사)
- 2016년 8월 : 순천향대학교 일원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경영학박사)
- 2015년 12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관광학부 강사  
<관심분야> : 항공서비스, 인적자원관리

#### 차 석 빈(Suk-Bin Cha)

정회원



- 1988년 2월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0년 8월 : 경희대학교(경영학석사)
- 1995년 8월 : Virginia Tech(호텔관광경영학박사)
- 1996년 3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호텔외식경영, 서비스마케팅